

# 호텔·모텔도 VC투자 받을수 있다… IT와 결합 때만

(벤처캐피탈)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 발굴·발표  
신규벤처투자 2022년엔 4.4兆 기대  
여관·숙박·임대업도 벤처기업 인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정보기술(IT)과 결합한 숙박업, 공유형 오피스,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도 앞으로는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기업 인증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도 '명문장수기업' 타이틀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확정한 규제 혁파는 모두 1400건이 넘는다"면서 "오늘은 신제품과 새로운 서

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주와 그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방안과 신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서 출시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필요시엔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이 이번 규제개선의 골자다. 기존엔 숙박·음식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의 VC 투자를 모두 허용

키로 했다.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업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창업·벤처기업들이 외부자금을 유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서다.

이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중기부는 지난해 2조4000억원 수준이던 신규 벤처투자가 2022년에는 4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정 업종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유통 주점업 ▲무도 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은 앞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여관업, 숙박업, 임대업, 골프장, 노래연습장 등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유 오피스업을 하는 위워크, 쉐어하우스 스타트업 기업 등이 관련 확대 조치 시행 이후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서 업종 제한 요건도 모두 없앴다. 그동안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었다.

중기부는 내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업종에서도 명문장수기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조달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개념도 대폭 확대했다.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 개념을 넓히면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 기술개발제품으로 산정되는 금액이 크게 늘고, 관련 분야 중소기업들의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빌글해 개선하겠다"며 "공유경제 등 규제개선을 위한 3차 민관합동 끝장캠프를 다음 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홈버튼 없애고 얇아진 '아이패드 프로'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한 '맥북에어'

애플 '언팩 이벤트'서 신제품 소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언팩 이벤트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에어, 맥 미니 등 하드웨어 제품을 소개했다.

새 아이패드 프로는 훨씬 작아진 크기를 자랑한다. 두께는 5.9mm로 전작보다 15% 얇아졌다. 또한 배젤을 극소화한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스크린 크기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종류로 나왔다.

가장 큰 특징은 아이폰 XS, XS맥스, XR과 마찬가지로 물리 홈버튼을 제거한 점이다. 물리 버튼 대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화면 특정 지점에서 쓸어내리는 스와이프 동작을 통해 이전 단계로 돌아간다. 새 아이폰과 마찬가지로페이스ID(안면인식) 기능을 갖췄으며 사용자 얼굴을 3차원으로 인식해 로그인과 결제기능이 가능하며 맞춤 이모티콘(이모지)을 만들 수 있다.

성능을 맡은 A12X 바이오닉칩은 연산 속도가 높아져 인공지능(AI)관련 처리를 하고 5K 수준 해상도를 구동하면서도 빠르게 동작했다. 애플은 어도비 포토샵 아이패드 버전과 NBA 농구 게임 시연 등을 통해 이런 속도를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줬다. 확장성면에서는 USB-C 포트를 내장하는 대신 헤드폰 잭을 없앴다.

가격은 11인치 모델이 799달러(약 91만원), 12.9인치 모델은 999달러(약 113만원)에서 시작한다.



새 맥북에어  
는 고해상도 고  
품질 영상을 보  
여주는 13.3인  
치 레티나 디스  
플레이를 탑재했  
다. 여기에 T2 칩  
을 통해 터치ID를 구현했다. 3세대 버터  
풀라이 키보드와 포스터치 지원 터치패  
드 등 맥북 프로의 최신기술 상당수를 가  
져왔다.

외관은 10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만  
들어 친환경성을 높였고 무게는 이전 제  
품보다 25% 가벼워진 1.24kg이다. 연산  
장치는 8세대 인텔 듀얼코어 CPU에 16  
GB 램, 저장용량은 최대 1.5TB(테라바  
이트)까지 늘릴 수 있다. 13.3인치 맥북  
에어 가격은 1199달러(약 136만원)에서  
시작한다.

이 밖에 애플은 4년 만에 업데이트 한  
맥미니 제품도 선보였다. 전작에서 알루  
미늄 바디와 기본 골격을 계승한 가운데  
8세대 4/6코어 프로세서로 5배 빨라졌으  
며 8기가 램, 128GB SSD 등으로 기본형  
을 시작한다. T2 보안칩은 동영상 코덱  
HEVC 인코딩을 30배나 빠르게 하며 선  
택사양으로 10Gb 이더넷포트를 장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본 썬더볼트3 포트 외에 H  
DMI 단자, USB-A 단자 등 다양한 포트  
를 내장한 것이 장점이다. 가격은 799달  
러(약 91만원)부터 시작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새로나온 아이패드 프로.



2018년형 맥북 에어.  
/애플 홈페이지

## 직원에 나눠준 성과급, 세액공제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 '존경받는 기업인' 적극 지원

정부가 근로자와 회사 성과를 나누고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는 '존경받는 기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이들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한도 50억→70억원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0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 출연시 창업·벤처기업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를 공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사람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 우리의 미래"라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홍 장관은 "좋은 기업가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널리 알려지면 젊은이들은 창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좋은 기업에 인재들이 더 많이 몰릴 것"이라며 "52시간 근무제는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유연하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장관과의 간담회에는 휴넷 조영탁 대표, 플레이오토 김상혁 대표, 씨믹스 유완식 대표, 메카로 이재정 대표, 금진 김진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휴넷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3%는 적립해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고 있다. 매년 전 직원이 해외로 워크샵을 가고, 무제한 자율휴가제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레이오토는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 형태로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사내벤처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씨믹스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00~500%를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메카로는 반기별로 당기순이익의 20%를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메카로 이재정 대표는 "중소기업은 따로 연수원 운영이 어려우니 공무원 연수원 등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또한 중기에서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금진 김진현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또 존경받는 기업인 대표들을 중기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소기업 정책 기획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현장의 기업애로 등을 수시로 청취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사용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2월 시범서비스 예정인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조기 정착과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을 도울 예정이다.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일명 '제로페이'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0.

5% 이하의 낮은 결제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이 편리한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00여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중기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해 1일 하루 교육을 하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